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5 Issue | Vol. 4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무역 협정 마감 시한 압박에 아시아 시장 혼조세 — page 1-2
- 6월 제조업 경기, 50.7로 속도 상승 — page 2-3
- 수상한 수입 활동 보고 후 FDA · 보건부 · 농업부 · 관세청, 마닐라 항 공동 점검 실시 — page 3-4
- 필리핀의 명확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필요성 제기 — page 4-5
- 신임 관세청장 네포무세노, 정책 연속성 약속 — page 5-6
- SEC, 기업 편의 제고 위한 새 헬프데스크 운영 개시 — page 6-7
- PEZA, 상반기 투자 승인 전년 대비 59% 증가 — page 7

UPCOMING EVENT

- [얼리버드 프로모션] 2025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 page 8

무역 협정 마감 시한 압박에 아시아 시장 혼조세

July 02, 2025 | Agence France-Presse | Philippine Daily Inquirer

홍콩, 중국 - 아시아 증시, 무역전쟁 우려 속 혼조세... 트럼프 "관세 마감 시한 연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관세 부과 시한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아시아 증시는 수요일 혼조세를 보였다. 일본에 대한 관세 강화 위협으로 도쿄 증시는 타격을 입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예산 법안이 가카스로 상원을 통과한 뒤 시장 심리는 엇갈렸다. 대규모 감세 조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해당 법안이 국가 부채를 약 3조 달러 늘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적"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 일주일 앞둔 시점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여러 건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부가 협정 최종 타결 시한을 7월 9일로 설정했지만,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시한이 연기되거나 각국에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자신은 "유예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협상을 중단하거나 일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그가 겨냥한 국가 중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는 이번 주 미국산 쌀과 자동차의 일본 수출과 관련해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에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일본과는 회의적이다. 그들은 매우 까다롭다. 이해해야 할 것은, 그들이 매우 버릇이 없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쿄는 지난 30년, 40년 동안 우리를 속여 왔다"고 덧붙였다.



A dealer walks past near the screens showing the foreign exchange rates at a dealing room of Hana Bank in Seoul, South Korea. Asian stock markets closed mixed as investors remain worried about the fate of Trump's tariffs. (AP Photo/Lee Jin-man)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매우 큰 무역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30%, 35% 또는 우리가 정하는 어떤 비율이든 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관리들이 워싱턴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후 나온 이러한 발언은, 양국 간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

도쿄 증시는 하락했으며, 화요일 1% 이상 하락한 데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SPI 애셋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인스는 "일본은 국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쌀 시장을 쉽게 개방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수출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가 없다면 일본은 취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10%를 차지하며, 지금 정면 타격이 되고 있다. 이는 단지 관세 문제만이 아니라 '가시성'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본보기가 되고 있고, 시장은 다음 타격이 누구일지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소사이터티 정책연구소(APSI)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에 반대하면서, 일본의 24%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서울, 상하이, 마닐라, 뭄바이, 방콕, 자카르타가 하락했고, 반면 홍콩, 시드니, 싱가포르, 타이베이, 웰링턴은 소폭 상승했다.

유럽 시장에서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모두 오후에 상승세를 보였다. [Cont. page 2]

무역 협정 마감 시한 압박에 아시아 시장 혼조세

[Cont. from page 1]

워싱턴에서는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감세 연장과 메디케어 등 일부 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제 하원 통과라는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 이미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막대한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달러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대다수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부진할 경우 이달 중 인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달러를 주요 통화 바스켓과 비교하는 달러 인덱스(Dollar Index)는 올해 상반기 동안 10.8% 하락하며, 글로벌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기업 뉴스로는, 호주의 국영 항공사인 콰타스(Qantas)가 시드니 증시에서 2% 이상 하락했다. 이는 해커들이 600만 명의 고객 민감 정보를 포함한 시스템을 침입한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술 대기업 알리바바는 특정 제품 구매에 대해 7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하락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33779/asian-markets-mixed-as-trade-deal-cut-off-looms>

6월 제조업 경기, 50.7로 속도 상승

July 02, 2025 | Malaya Business Insight

Philippines Manufacturing PMI

sa, >50 = growth since previous month



Source: S&P Global PMI.

수출 부진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 ‘신중한’ 희망 제공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최근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6월에 소폭 회복했으며, 5월의 둔화 이후 생산과 고용이 반등했다고 S&P 글로벌의 최신 보고서가 밝혔다.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S&P 글로벌 필리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월의 50.1에서 6월에는 50.7로 상승했다. PMI 수치가 50을 넘으면 기업 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이번 상승은 소폭에 그쳤다고 평가되었다.

생산과 수요 반등

S&P는 6월에 생산이 증가해 전월의 소폭 위축에서 반등했다고 밝혔다. 신규 수주도 증가세를 보이며 기업들의 구매 활동 확대를 이끌었다.

보고서는 “수요 상황의 개선과 생산 수요의 회복은 기업들이 구매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했다”고 전했다.

[Cont. page 3]

6월 제조업 경기, 50.7로 속도 상승

[Cont. from page 2]

고용 반등

6월은 지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한 달로, 전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뢰가 일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이코노미스트 마리아ム 바루흐(Maryam Baluch)는 “제조업 전반의 실적은 여전히 비교적 부진했지만, 일부 강세 신호도 있었다”며 “고용 회복과 생산 반등이 5월의 하락을 상쇄했다”고 밝혔다.

신규 수주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했으며, 수출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바루흐는 공급 측 문제—예를 들어 납기 지연과 원자재 부족—가 생산 역량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한 단기 전망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 바루흐는 “향후 몇 달이 제조업 부문이 2023년의 강한 모멘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안정적인 수요가 제조업체들이 가격 결정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업 신뢰는 앞으로도 신중한 접근을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애널리스트 시각

리잘 커머셜 뱅킹 코퍼레이션(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6월 PMI가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근 2년간 최저 수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업체들의 주저함을 전 세계 무역 불확실성,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등 미국의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수출 수요를 둔화시키고,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리카포트는 말했다.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잠정적 휴전 상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제조업 활동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june-manufacturing-gains-pace-to-50-7/>

수상한 수입 활동 보고 후 FDA · 보건부 · 농업부 · 관세청, 마닐라 항 공동 점검 실시

July 01, 2025 | Claudeth Mocon-Ciriaco | BusinessMirror

가공식품으로 위장된 농산물 반입 등 수상한 수입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자, 식품의약청(FDA)은 보건부(DOH), 농업부(DA), 관세청(BoC)과 함께 7월 2일(화) 마닐라 항에서 공동 점검을 실시했다.

BusinessMirror

이번 조사는 지난 2025년 6월 26일 농업부가 FDA에 제출한 공식 요청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당 요청에서는 일부 수입 화물이 가공식품으로 잘못 분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허위 신고

농업부에 따르면, 일부 화물이 실제로는 농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가공식품으로 허위 신고해 규제 감독과 통관 절차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Cont. page 4]

수상한 수입 활동 보고 후 FDA · 보건부 · 농업부 · 관세청, 마닐라 항 공동 점검 실시

[Cont. from page 3]

점검 결과, 문제의 식품 제품들이 계란국수와 만두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FDA)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번 합동 작전은 최초 첩보 보고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며, 관련 제품들이 적절한 규제 감독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책임 추궁

현재 FDA와 농업부는 책임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고, 향후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FDA의 파올로 S. 테스톤(Paolo S. Teston) 청장은, FDA가 식품의약품법(FDA Act)에 따라 국내에 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해 규제, 점검, 감시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기관의 책임을 재확인하며, 기업들이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로서의 영업 허가서(LTO)를 확보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각 제품에 대해 **제품 등록 인증서(CPR)**를 취득하는 등 규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FDA는 모든 통관 지점에서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엄격한 규제 감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에 따라, 지속적인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행정부는 불안전하거나 허위 신고된 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식품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며, 필리핀 수입 법령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01/fda-doh-da-boc-conduct-joint-inspection-at-manila-port-following-reports-of-suspicious-importation-activities/>

필리핀의 명확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필요성 제기

July 02, 2025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발전 속에서, 한 소비자 단체가 필리핀 정부에 지역 데이터 경제의 성장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티즌워치 필리핀(CitizenWatch Philippines)은 동남아 전역에서 데이터 저장소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은 데이터 주권과 로컬라이제이션에 관한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없다면, 필리핀은 데이터 센터 및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재 투자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시티즌워치 필리핀의 수석 공동대표 오를란도 옥살레스(Orlando Oxales)는 “데이터는 이제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와 동등한 전략적 자산이 되었으며, 필리핀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은 인근 국가들이 투자 유치와 디지털 주권 보호를 가능케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뒤처질 여유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민감한 데이터를 자국 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각국의 데이터 경제를 전인하며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데 기여했다.

반면 필리핀은 여전히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지역 기반 디지털 인프라 투자 유인을 위한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이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정책 공백이 오히려 필리핀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ont. page 5]

필리핀의 명확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필요성 제기

[Cont. from page 4]

옥살레스는 “정확히 조율된 로컬라이제이션 법은 디지털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유치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필리핀이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합과 국가 통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과 협력하며, 회복력과 주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국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02/2454737/clear-data-governance-policy-philippines-sought](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02/2454737/clear-data-governance-policy-philippines-sought)

신임 관세청장 네포무세노, 정책 연속성 약속

July 02, 2025 | Ted Cordero | GMA Integrated News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아리엘 네포무세노(Ariel Nepomuceno)가 공식적으로 필리핀 관세청(BOC) 수장직을 맡으며, 전임 리더십 하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네포무세노 청장은 정책의 연속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화, 단속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 전략적 혁신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지시에 전폭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히며, 관세청의 핵심 임무인 세수 증대, 합법적 무역 촉진, 밀수 단속,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 양성에 집중할 것을 재확인했다.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관세청을 이끌었던 비엔베니도 루비오(Bienvenido Rubio) 전임 청장은, 아리엘 네포무세노 신임 청장과 관세청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루비오 청장 재임 기간 동안 관세청은 2023년 8,830억 페소, 2024년 약 9,160억 페소의 세수 실적을 기록하며 매년 목표치를 꾸준히 초과 달성했다.

단속 활동 측면에서도 밀수 근절 노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2023년에는 432억 9,000만 페소 상당의 불법 물품이 적발되었으나, 2024년에는 2,100건 이상의 작전을 통해 851억 6,000만 페소로 급증했다.

전임 리더십 하에서 관세청은 디지털 개혁을 적극 추진했으며, 핵심 관세 업무 166개 중 161개를 자동화해 96.99%의 디지털화율을 달성했고, 대면 업무를 대폭 줄였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전자여행통관시스템(Enhanced e-Travel Customs System), 장기체류화물 추적시스템(Overstaying Cargo Tracking System), ATA 카르네(국제통관증) 모니터링 시스템, 국가관세정보시스템(National Customs Intelligence System) 등 주요 무역 촉진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들 시스템은 신고 간소화, 실시간 화물 추적,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통합을 통해 보다 빠르고 투명한 통관 절차를 가능하게 했다.

이양과 각오

슈퍼 라디오 dzBB와의 인터뷰에서 네포무세노 청장은 예상보다 빠른 취임 소식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갑작스러웠고,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포무세노 청장은 오래 지연되어온 개혁 과제들을 즉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그 출발점으로 기술 혁신을 꼽았다.

그는 “모든 관세 절차는 100% 디지털화가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6]



Photo from BOC

신임 관세청장 네포무세노, 정책 연속성 약속

[Cont. from page 5]

네포무세노 청장은 수입업체 평가 및 결제 처리와 같은 주요 단계에서 사람의 재량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디지털화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는 조작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지적돼 왔다.

그는 태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의 모범 사례를 언급하며, “새롭게 바퀴를 발명하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글로벌 모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순위 중 하나는 사전 적재 신고 시스템(PLSR, Pre-Loading Survey System) 도입으로, 이는 화물이 원산국을 출발하기 전 모든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서류상으로는 1,000만 페소였던 물품이 갑자기 500만 페소로 줄어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는 가짜 주소를 이용해 물품을 수입하는 ‘유령회사(ghost companies)’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입업체를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 단계부터 이미 가짜 업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네포무세노는 관세청장 임명 전 민방위청(Office of Civil Defense) 차관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관세청 집행국 부청장,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보조청장으로 재직해 왔다.

관세청은 “단속과 조직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공공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네포무세노 청장이 관세청의 현대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 및 단속 역량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with reports from Sherylin Untalan/ VAL,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51238/new-customs-chief-nepomuceno-vows-continuity/story/>

SEC, 기업 편의 제고 위한 새 헬프데스크 운영 개시

July 03, 2025 | Doris Dumlaog-Abadilla - Business Features Editor / @philbizwatcher | Philippine Daily Inquirer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Headquarters in Makati. | PHOTO: INQUIRER.net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필리핀 내 신규 사업체 등록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마카티 본사에 민원 응대 전용 헬프데스크를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마카티 애비뉴에 위치한 SEC 본사 1층에 새로 문을 연 **공공지원 및 민원 데스크(PACD, Public Assistance and Complaints Desk)**는 일반적인 점심시간에도 운영되며, 대중의 상담을 원활히 지원하고, 이해관계자의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반(反) 관료주의청(ARTA)의 기준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SEC 프랜시스 림(Francis Lim) 위원장은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PACD 개설은 필리핀 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중이 SEC의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EC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와 신속한 응대가 필수적”이라며, “헬프데스크를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SEC에 등록하고 자본시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도록 유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제정된 공공 서비스 효율화 및 기업환경 개선법(공화국법 제11032호, 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 of 2018)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은 고객 상담과 민원 안내를 위한 PACD(공공지원 및 민원 데스크)를 사무소 내에 설치해야 한다.

[Cont. page 7]

SEC, 기업 편의 제고 위한 새 헬프데스크 운영 개시

[Cont. from page 6]

헬프데스크는 점심시간에도 운영되는 것 외에도,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창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SEC는 기업 서류 요청 수수료를 인하하며,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프라인 헬프데스크 외에도, 대중은 **SEC 콜센터 대표전화 (02-5322-769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성격에 따라 SEC 각 부서에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imessagemo.sec.gov.ph 웹사이트를 통해 요청을 제출할 수도 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33817/new-sec-help-desk-aims-to-ease-doing-business>

PEZA, 상반기 투자 승인 전년 대비 59% 증가

July 03, 2025 | Doris Dumlaio-Abadilla - Business Features Editor / @philbizwatcher |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723억6천만 페소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의 454억8천만 페소보다 59.1% 증가한 수치다.

malaya
Business Insight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PEZA의 테레소 팡가(Tereso Panga) 청장은, PEZA의 2025년 투자 목표인 2,350억 페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팡가 청장은 “지속적인 투자 증가세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PEZA의 역할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EZA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33개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는 2024년 상반기의 120건에 비해 10.83% 증가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들이 가동되면, 연간 약 12억6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프로젝트는 총 32,983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상반기에 승인된 프로젝트들이 창출할 예정인 25,259개의 일자리보다 30.58% 증가한 수치다.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PEZA)은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상반기에 승인된 주요 프로젝트 중 8건의 총 투자비용이 500억 페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승인된 총 133건의 프로젝트 중 55건은 제조업, 39건은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IT-BPM), 12건은 내수기업, 10건은 시설 관련 기업, 9건은 경제구역 개발, 그리고 유틸리티 및 물류 분야는 각각 4건이다.

지역별로는 IV지역(칼라바르손)이 68건으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했으며, 이어서 VII지역(20건), 국가수도권(NCR, 18건), III지역(16건), 코르디에라 자치구역(3건), 그리고 XI·VI·I지역이 각각 2건, X·XII지역이 각각 1건씩의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PEZA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투자 유치국은 한국이며, 그 뒤를 미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이 잇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PEZA는 60억 페소 규모의 신규 투자를 승인했는데, 이는 2024년 6월의 86억5,000만 페소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이 금액은 31개의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며, 연간 약 1억6,143만 달러의 수출 수익과 3,646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PEZA는 밝혔다.

PEZA는 미국, 중국, 일본, 스페인, 독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의 다양한 해외 및 국내 투자 사절단 활동을 통해 50건 이상의 투자 유망건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절단 활동을 통해 전자 및 반도체, 첨단 제조업, 자동차, 항공, IT-BPM 등 IT,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분야에 대한 투자 관심이 유입되었다고 PEZA는 설명했다.

PEZA의 테렌스 팡가(Tereso Panga) 청장은 “필리핀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에 확실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eza-h1-investment-approvals-rise-59-on-yr/>

UPCOMING EVENT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SEPTEMBER 25-26, 2025 | MARRIOTT GRAND BALLROOM

REGISTER NOW!



Early Bird Promo valid until July 15, 2025!

Use code **ARANG25EB** during registration to enjoy discounted rates.

Members of the Joint Foreign Chambers also get an exclusive discount! Contact your respective chamber for the **special JFC member code**.

Visit our official event website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for more information.

www.arangkadaphilippines.com
[f](#) /Arangkada Philippines
 [@](#) /arangkadaphilippines
 [X](#) /ArangkadaPH
 [in](#) /Arangkada Philippines

필리핀 외국상공회의소 합동위원회(Joint Foreign Chambers, JFC)의 6개 회원 기관은 **2025 아랑카다(Arangkada) 필리핀 투자 포럼**의 등록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은 2012년부터 필리핀 내 투자, 경제 개혁, 포용적 성장에 대한 고위급 논의를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올해 포럼은 **2025년 9월 25일(목)과 26일(금)**, **파사이스 메리어트 그랜드 볼룸(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언론계의 저명한 인사 수백 명이 모여 투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전략과 비즈니스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JFC가 선정한 7대 유망 산업인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 인프라, 제조 및 물류, 관광, 핵심 광물, 창의 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포럼 첫째 날에는 정부 및 기업 고위 관계자들의 연설과 함께, 해당 7개 분야에 대한 분과 세션이 마련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 간(B2B), 기업-정부 간(B2G) 네트워킹 기회, 부스 전시를 통한 제품 및 사업 시연,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를 다루는 산업별 심층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필 상공회의소(KCCP) 사무국에 전화(+632-8885-7342) 또는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